

홍지선 제2차관, “강릉 ITS 세계총회, 성공 개최에 총력”

- 26일 강릉 컨벤션센터 개관식 참석 … 주요 행사장 점검하며 빈틈없는 준비 강조

□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26일 전일 강릉시를 방문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, 강릉 컨벤션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.

○ 이번 방문은 세계 각국의 정부·기업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TS 세계총회*를 앞두고 행사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,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.

* (시간/장소/참석규모) '26.10.19.(월)~23.(금) / 강릉시 / 약 90개국 6만명^{예상}
(주최) 국토부·강릉시 / (주요내용) 장관회의, 양자면담, 학술회의, 전시 및 기술시연 등

□ 홍 차관은 먼저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행사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, 준비 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보완 사항 등을 점검했다.

○ 이어 강릉 컨벤션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, “새롭게 조성된 컨벤션센터가 ITS 세계총회의 주요 행사공간으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”을 강조했다.

□ 이후, 강릉 올림픽파크 일대(전시장, 야외광장, 하키센터)와 선교장 등 주요 행사 장소를 직접 둘러보며 총회 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을 점검했다.

○ 특히, “세계 각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행사장 운영부터 안전, 숙박·관광, 통역·안내 등 참가자 편의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국제행사로서의 품격을 높일 것”을 당부했다.

- 홍 차관은 “곧 개최될 강릉 ITS 세계총회는 AI,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혁신을 세계에 선보이고, 우리 ITS 기술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”라며,
- “세계 각국의 정부·산업계·전문가들이 강릉을 찾는 만큼 행사 준비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”고 밝혔다.
- 아울러, “이번 총회를 계기로 강릉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고,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디지털도로팀	책임자	팀 장 이은영 (044-201-4130)
		담당자	사무관 장유진 (044-201-3928) 주무관 김도연 (044-201-4131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| TOMORROW